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강진옥*

〈논문개요〉

본 연구는 우리 무속여성신화 중에서 여성인물의 활약상이 부각되는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그 내적 연관성을 검토하고 무속여성신화를 관류하는 세계관적 기반을 밝혀보고자 시도된다. 〈바리공주〉는 죽은 자를 천도하는 신격에 관한 신화이고, 〈세경본풀이〉는 농경의 풍요를 주재하는 농경신에 관한 신화이다. 두 신화는 죽음과 삶의 문제라는 각기 상이한 직능을 지닌 여성인물이 서천여행을 통해 획득한 생명의 꽃으로 죽은 자를 소생시킨다는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같은 서사구조의 유사성은 공통화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두 신화에서 여성신격을 형상화하는 방식을 검토해보면, 인물성격과 해당신격의 제의적 직능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초자연적 존재에게 구출된 후 인간세상과 격리되어 양육되는 바리공주는 삶/죽음의 양가성과 함께 죽음과의 친연성을 보여주는데 이같은 인물형상은 죽은 자를 천도시켜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하는 그의 직능과도 연관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사랑 속에 성장한 자청비가 역동적 생명력으로 제약적 여건들을 극복하고 풍요와 다산을 실현하는 것 또한 농경신으로서의 직능과 긴밀하게 부합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인물들이 각기 병든 부모와 살해된 남성인물의 소생을 위해 남복차림(남/녀)으로 서천여행길(삶/죽음)에 오름에 따라 그들의 경계존재적 국면은 더욱 부각되지만 이러한 대립적 국면들이 서천에서의 과제해결과 생명꽃 획득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성인물들은 다차원적 신성존재로 전환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공간인 서천꽃밭은 죽음의 세계이자 새로운 생명이 생성되는 근원적 생명의 공간인데 이는 서천과 이승을 오가면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되풀이 마련하는 농경신 자청비의 행적을 통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다.

영원한 삶을 꿈꾸는 무속적 상상력은 근원적 생명 공간인 서천꽃밭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재생이라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속적 생명인식은 곡물의 결실과 죽음 그리고 재생의 형태로 순환되는 농경적 생명원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무속여성신화, 바리공주, 세경본풀이, 여성신격의 형상방식, 무속적 상상력, 서천꽃밭, 죽음과 재생, 농경적 생명원리

*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차례

1. 머리말
2. 서사구조와 인물형상방식 비교
 2.1.서사구조 비교
 2.2.여성인물의 형상 비교
3. 여성인물 존재방식과 직능의 관련성
 3.1.경계존재로서의 여성인물
 3.2.인물의 존재방식과 직능
4. 무속신화의 생명인식과 농경적 원리
 4.1. '죽음과 재생' 구조와 농경원리
 4.2. 저승, 그 생명재현의 근원
5. 마무리

1. 머리말

한국의 무속의례에서 구연되는 무속신화에는 여성신격에 관한 신화적 서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무속 여성신화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개별 유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신화적 특성을 규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1] 그러나 실제로 우리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여성신격의 형상화 방식이나 신화적 행적 등을 살펴보면 각 유형 간에는 적지않은 내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무속여성신화를 관류하는 무속적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신격의 행적과 그들이 수행하는 의례적 직능과의 관계양상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

1) 무속에서 전승되는 여성신화의 존재양상과 여성신격들의 형상화 방식 및 그 신화적 역할에 대한 학문적 관심들이 부각되어감에 따라 무속신화의 서사적 구조와 의미, 인물의 성격을 비롯한 신화적 특성들이 상당부분 해명되고 있는 중이다. 무속의 여성신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바리공주〉, 〈제석본풀이〉, 〈세경본풀이〉〉, 〈삼공본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에 둔 여성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무속신화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겠다.

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무속의 여성신격 중 여성적 역할이나 비중이 특히 부각되는 두 유형,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여성인물의 신화적 역할을 주목해 보기로 한다.

〈바리공주〉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현재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무속신화의 보유지역인 제주도에는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형들까지 다수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가의 2대 광역분포 유형인 바리공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바리공주〉는 죽은 자를 천도하는 사령제에서 구송되는 무가로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으나 후일 저승에 가서 생명수를 구해 죽은 아버지를 소생시킨 딸의 이야기이다. 이와 달리,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에만 전승되고 있는 무속신화로서[3] 주인공인 자청비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었으며, 곡종을 획득한 후 지상으로 내려가 농경이 시작되게 한 문화영웅이다.

〈세경본풀이〉는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농경신에 관한 본풀이이고, 〈바리공주〉는 사령제에서 죽은 자를 천도하는 신격의 내력을 풀이한 무가이다. '농경의 풍요'와 '죽은 자의 천도'라는 목적을 가진 제의에서 각기 구연되는 두 유형신화는 상이한 직능신에 관한 본풀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사구조와 여성인물이 수행하는 행동방식에서 적지않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들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행적의 핵심은 '죽음과 재생'으로 요약할 수

---

2)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4』(홍태한외, 민속원, 1997-2004)은 그동안 개인 연구자들이 보고한 이본들을 집대성한 자료집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수가 많으면서 서사단락상의 변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서울지역전승본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삼겠다.

3) 세경본풀이도 현재 여러 편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에 수록된 두 편(이달춘구연본, 강을생구연본)과,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에 수록된 각편(안사인구연본)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는다. 현용준채록본은 인물형상과 서사적 체계를 잘 갖춘 각편으로 판단되며, 진성기채록본들은 신화적 논리로 볼 때 정연한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있다. 바리공주는 저승에서 약수와 꽃을 구하여 죽은 부모를 되살렸고, 자청비는 두 번이나 저승행을 단행하여 환생꽃으로 종과 남편을 소생시켰다. 이들 인물들이 보여주는 서사적 행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신화소들은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기 목적을 달리하는 제의에서 제향받고 직능상으로도 서로 다른 두 신격에 관한 신화의 내용구조에서 적지않은 일치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역을 달리하여 존재하면서 각기 생자와 사자를 위한 제의에서 구연되는 두 개의 무속신화가 유사한 구조와 신화소를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문제를 주된 과제로 삼는다. 첫째, 서사구조와 신화소의 유사성 및 신화의 주인물이 보여주는 유사한 행적은 어떠한 신화적 논리에 근거하는가? 둘째, 인물의 성격과 그들에게 부과된 직능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같은 인식내용을 형성하게 한 세계관적 기반이 무엇인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서사구조와 인물형상방식 비교

2.1.서사구조 비교

〈세경본풀이〉와 〈바리공주〉에서 주인공의 행적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은 '죽은 자를 특정한 매개물(꽃, 물)로 소생시킨다'는 것이다. 바리공주는 병든 부친(부모)을 소생시키려 저승여행을 단행했고, 길값과 약값으로 요구된 힘든 노역과 다수(7명/3명)의 아들출산이라는 과제를 완수한 끝에 약물과 꽃을 구했으며 아버지를 되살릴 수 있었다. 반면, 자청비는 자신과 일정한 관계성을 갖는 남성인물들이 살해되자 그들을 되살리고자 서천의

환생꽃을 구하기 위한 저승여행을 두 번에 걸쳐 수행한다. 서천의 꽃을 구하는 동안 그녀는 트릭스터(trickster)적인 존재태를 보여주는데,[4] 남장을 한 그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 결과 꽃밭주인인 황새곤간의 눈에 들어 사위가 되고 꽃밭에 접근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리공주〉는 현재까지 상당한 숫자의 각편이 채록보고된 유형인데[5] 이본들의 내용은 전승지역별 특성과 함께 각편차원의 변이양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6] 바리공주 이본들은 '영웅의 일생'에 바탕한 공통적인 유형구조를 지니는데, 특히 인물성격의 형상화 방식으로 볼 때 이는 '외적 힘의 발현과 투쟁'으로 대변되는 남성영웅들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7]

바리공주의 서사단락을 구약노정을 중심에 두고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서 버려지다.
2.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구출, 양육되다.
3.15세가 되었을 때, 부모와 만나게 되다.

---

4)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트릭스터적인 면모는 몇 차례 되풀이 나타나는데, 남복상태의 동문수학 기간이나 서천행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5) 현재 보고된 채록본만 해도 85편 이상이며, 현재도 서울지역에는 지노귀굿이 자주 행해지므로 바리공주 무가의 전승상황은 매우 양호하다 하겠다.

6) 바리공주 이본연구는 서대석(「바리공주연구」, 『계명논총』 7, 계명대학교, 1972)에 의해 지역별 변이양상과 문학적 특성이 본격적으로 고찰된 이래 수많은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사단락을 구성하는 화소차원의 변이양상을 자세하게 규명한 홍태한(『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강진옥,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등을 들 수 있다.

7) 영웅의 일생구조는 주몽이나 탈해 신화에서부터 후대의 영웅소설에 이르기까지 인물의 일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사관습의 하나로 존재해왔다.(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5,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 대체로 남성영웅의 외적 투쟁과 결과로서의 공업성취가 주조를 이루지만, 바리공주를 비롯한 여성인물들의 서사에서는 인고와 같은 내적투쟁이나 자기부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내용들은 최근 무속신화를 여성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각되는 중이다.

4.부친(부모)의 병환과 약(서천의 약수)에 대해 알게 되다.
5.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던 구약여행을 자청하여 출발하다.
6.구약노정에서 일어난 사건들
-석가세존이 수여한 나화로 저승의 귀신들을 천도하고 서천꽃밭으로 직행하다.(서울본)
-갖은 노역을 길값으로 제공하면서 서천에 이르다.(동해안본)
7.약물지기가 약값으로 혼인과 다수의 아들을 요구하다.
-석삼년간의 노역(물긷기·나무하기·불 때기)과 일곱 아들 낳기(서울본)
-세 아들 낳기(동해안본)
8.약물과 꽃을 지니고 돌아오다.
-남편과 일곱 아들을 데리고 부왕의 나라로 돌아오다.(서울본)
-남편은 승천하고, 바리데기는 세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다.(동해안본)
9.부친(부모)을 소생시키고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다.
-무장승과 결혼하여 부부로 인정받는다.(서울본)
-바리데기와 세 아들은 친정부모로부터 적극 인정된다.(동해안본)
10.신직을 부여받다.

버림받은 딸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영약을 구해 부모를 소생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위의 단락들에서 죽음과 소생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화소들은 다음과 같다.

기아, (부모)득병/죽음, 여행, 노역, (서천)혼인, 출산, 약물/꽃, 소생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결혼을 전후하여 각각 한번씩 서천을 다녀온다. 처음은 집안의 종인 정수남의 죽음과 관련하여 행해졌고, 두 번째는 독살된 남편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청비의 서천

여행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1.자청비의 출생 : 기자정성으로 태어난 귀한 아이
2.문도령과의 만남 : 냇가, 버들잎 매개
3.남복으로 동문수학 : 정체성 확인 위한 수많은 시험 통과
4.문도령과의 결연과 이별 : 혼인통보 받고 귀가하는 문도령에게 여자임을 밝힘
5.정수남의 속임수 : 게으른 종을 독려하여 나무하러 보내나, 마소를 구워먹고 도끼마저 잃어버린 정수남은 문도령의 놀이판을 구경하다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함
6.정수남 살해 : 문도령을 만나러 따라나섰다가, 겁간하려는 정수남을 살해
7.서천행 및 결혼 : 부모를 달래려고 서천행 단행,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여 황새곤간의 사위가 됨
8.정수남의 소생과 쫓겨남 : 환생꽃으로 정수남을 소생시키나 부모로부터 쫓겨남
9.만남에의 시도와 좌절 : 청태국할망의 수양딸이 되어 문도령의 혼수베에 사연을 새겨 넣고, 자청비를 찾아온 문도령은 바늘로 손가락을 찔리자 되돌아감
10.쫓겨남과 여승 되기 : 할망에게 쫓겨난 후, 중이 되어 시주 받으러 다님
11.승천과 상봉 : 문도령 시녀를 만나, 함께 승천하여 문도령과 상봉함
12.결혼과 지상행 : 며느리 시험에 통과, 결혼 후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옴[8]

8) 이 대목은 이본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진성기의 두 각편은 결혼한 지 1년이

13.문도령의 죽음 : 자청비를 탐내는 주변남자들이 공모하여 문도령을 살해함9)

14.문도령의 소생 : 문도령을 깊이 잠든 것처럼 위장하고, 보쌈 하러 온 남자들을 기지로 물리친 후 서천의 꽃을 가져와 소생시킴

15.서천혼인 완성 : 문도령을 서천으로 보내 애초의 혼약을 완성시키며, 그에게 이승과 저승에서 일정기간씩을 지내게 함

16.변란과 평정 : 하늘(또는 천자국)에 변란이 일어나고 자청비가 평정함

17.오곡수여와 지상 하강 : 문도령의 늦은 귀환/ 자청비는 옥황상제로부터 열두시만국과 오곡씨앗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옴10)

18.정수남 만남 : 정수남을 만나 함께 씨앗을 고르고 그의 굶주림을 해결해줌

19.세경신으로 좌정 : 문도령도 지상으로 내려오며, 문도령 · 자청비 · 정수남은 각기 상/중/하세경으로 좌정

1, 2차 서천행을 구성하고 있는 화소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후 자청비가 시부모의 허락을 얻어 문도령과 지상으로 내려와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현용준 채록본에는 자청비부부의 공간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천상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9) 단락 13과 15의 순서는 각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진성기본을 비롯한 이본들은 자청비가 변란을 평정하러 나가기 전에 문도령에게 서천에서 지내도록 하는 데 비해, 현용준본에서는 혼인 직후 문도령을 서천으로 보내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10) 이 대목에서도 현용준 채록본과 진성기 채록본은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자는 급히 돌아오고 맞이하느라 매무새가 흐트러진 문도령과 자청비의 모습을 장례법의 유래로 설명하고 문도령의 살해와 소생 그리고 자청비가 변란을 평정한 공으로 시만국과 오곡종자를 받아 문도령을 거느리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에 비해, 진성기 채록본들은 문도령의 그같은 모습을 자기를 보기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한 자청비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혼자 오곡의 씨앗을 받아 내려오며, 문도령도 자청비를 찾아 칠곡의 씨앗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온다.

1차: (정수남의)성적욕망, (정수남)죽음, 여행, (서천)혼인(미완), 꽃, 소생
2차: (주변인들)성적욕망, (문도령)죽음, 여행, (서천)혼인(지속), 꽃, 소생

〈세경본풀이〉에서 두 차례의 서천행은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죽음과 소생의례는 그것을 주재하는 여성인물로 인해 유발된 성적욕망이 중요 동기로 작용하며, 소생의 매개물이 꽃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다시 앞에서 살핀 〈바리공주〉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두 유형에서 제시된 죽음과 소생의 과정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과정과 동원되는 화소들은 놀라울 만큼 유사한데 공통화소는 〈죽음, 여행, 혼인, 꽃, 소생〉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랑의 감정이나 성과 관련된 욕망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세경본풀이〉와는 달리,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초극의지가 무겁게 제시되는 〈바리공주〉에는 그같은 욕망이 거의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리공주에게 다수의 아들출산을 요구했던 남성인물의 경우, 그 동기를 약값(서울본)이나 적강해소(동해안본)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휘된 남성적 욕망은 암시되고 있다. 특히 동해안본의 경우 서술자의 시각은 목욕하는 바리데기의 옷을 감추고 여자임을 자복 받으려하는 동수자에게 두어져 있어 골계적 흥미성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바리공주〉에는 여성인물의 욕망은 극도록 억압된 대신, 혼인과 출산대목에서 여성인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라는 시선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2. 여성인물의 형상 비교

여성인물의 형상에 함축된 의미체계를 고찰하는 것은 신화적 서사에 대

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두 신화의 주인공인 바리공주와 자청비는 그 이름에서부터 가족내적 위상과 존재방식을 각각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리공주는 지역에 따라 바리데기로도 불리는데, 이는 '버려진 아이'라는 뜻을 갖는다.11) 따라서 바리공주는 이름에서부터 부모에게 거부된 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녀는 아들을 간절하게 원했던 국왕부부의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남으로써 출생 순간부터 부모의 혐오대상으로 치환되어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문화권역 밖으로 버려진 바리공주는 제도권 밖에서 오히려 일상적 질서가 요구하는 여성적 규범과는 무관하게 성장하게 된다. 학문을 익혔고 그러한 지식체계 안에서 습득한 이념적 가치를 당위적 근거삼아 실천의 과정으로 나아간 셈이다. 그것은 지배이념의 내면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거부는 그녀의 무의식에 원형적 외상으로 저장되고, 그것은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한 자기확인에의 갈망을 극대화하게 한다. 그녀의 행위는 국왕(부부)으로 설정된 부모와의 관계회복을 지향하며, 부모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준다. 부모가 국왕부부라는 사실은 강한 자와 연결되고자 하는 그녀의 무의식적 열망의 크기와 강도를 대변한다고 하겠다.12) 이같은 부모와의 관계양상은 바리공주에게 인간관계의 원형적 모형으로 작용하는데, 남편인 무장승과

---

11) 버리기 직전 아기이름을 짓는 다음 대목에서 바리데기라는 이름의 어원을 짐작할 수 있다. "정 벌이려 하옵시거든, 아기 일홈이나 지성이다./ 발이다 발이덕이, 더지다 더지덕이/ 옥함에 금거북 잠을쇠를 어슥비슥 채여놋코/ 칠공쥬 세글자 금으로 색이고/ 례대신을 입시 들나하시여/ 어주 삼배후에, 옥함을 짊어지고/ 궐문박글 내달으니, 갈바를 아지 못할너라."(배경재구연본)

12) 여성인물의 성격형성과 양육자(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멜라니 클라인, 위니캇 등을 통해 체계화된 대상관계이론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한나 시걸, 『멜라니클라인 :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마델레인 데이비스 · 데이빗 월브릿지, 『울타리와 공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참조) 무속신화의 여성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의 방식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양육자 및 그들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보다 깊이있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의 관계는 물론, 아들들과의 관계양태도 그 복제에 다름 아니다.13)

이같은 현상은 부모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된 서울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녀는 출생 직후 후원에 버려진 채 3일 동안이나 방치되었다가, 봄날 꽃구경 나온 부모에게 까막까치 소리로 인해 그 존재가 환기되지만14) 왕의 명령에 의해 곧바로 물에 띄워 보내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15년 동안이나 망각되었던 바리공주의 인간계 복귀는 중병 든 부모가 약 때문에 그녀를 기억하여 찾아낸 결과였다. 부모의 기대를 알아채고 구약노정을 자청하는 바리공주는 자신을 구약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대상화되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들도 부모의 약값으로 교환하는 수단적 가치로 대상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바리공주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그녀와 부모 사이에 일체의 정서적 관계가 형성된 적 없었던 것처럼, 그녀와 아들들 간에도 그것은 부재하고 있다. 서술자의 시선은 오히려 무장승에게 두어지고, 서술내용도 부부관계를 중심축으로 전환되면서 바리공주의 결혼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국면을 부각하고 있다.15)

---

13) 이같은 특징은 바리공주의 행동방식과도 관련되는데, 부모와 무장승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는 달리 자신을 찾아온 대신에게는 권위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 상/하, 남/녀, 우/열의 이분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서울본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신하는 왕에게 예속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14) 대왕마마께옵서, 춘일이 온란헌데/ 무예청 대전별감을 다리시고// 후원의 화류구경을 하옵실제/동편을 바라보니 서긔 반공하고// 까막까치 소란히 짓는지라./ 서긔가 반공 하얏스니, 국가에 변사잇슬 증조요/ 저기 무엇이 잇길내// 까막까치가 저다지 소란허게 짓는야?/ 상궁 시녀 알외옵기를// 이번에 나신 아기를 내다 바리라 하옵시니/어명을 거역할 수 없사와, 후원에 버렷삽든이/ 아기 울음 소리가// 지금 까지도 은은이 들니나이다.(배경재구연본)

15) 이같은 양상은 버려야 할 딸에 대한 연민과 애착을 강하게 보여주는 어머니 목소리를 부각시키는 동해안본과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기아대목에서 딸에 대한 강한 애착감정을 끝까지 표현하는데, 이같은 양상은 모녀상봉 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같은 서술자의 시선은 바리데기와 아들들의 관계에도 이어져 바리데기의 모성적 국면이 포착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미로서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동해안본에서 인간적이며 정서적인 공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선 때문이다. 인간적 욕망과 감정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서술자 시선은 등장인물들의 관계양상에서도 인간적 국면을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와 달리, 자청비는 원하여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름이다.16) 그녀는 자식없는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해본 부모가 간절하게 소망한 결과 태어났다. 임신의 순간에서부터 출산, 양육의 과정 내내 전폭적으로 긍정되었던 그녀는 존재가치에서 자기애가 충족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자청비와 베짜기의 연관성을 특히 부각하는 현용준채록본은 계절별 작업공간까지 마련해줄만큼 세심한 부모의 관심 속에서 문화적 존재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같은 출생 및 성장배경은 이후 그녀의 행동양상 전반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당하게 추구하는 그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매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는 인물인 것이다.

자발적 욕구에 충실한 자청비의 경우 행위의 기준이 자기내부에 마련된 것이라면, 바리공주의 행동방식은 외부가치와 타인의 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차이에 대한 해석의 한 가능성은 출생과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청비의 행동방식은 부모의 전폭적인 긍정에 기반한 자기존중감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아버지와 딸' 이라는 부녀관계축을 근간으로 하여 전개되는 〈바리공주〉에 비해, 자청비의 행적이 서사의 중추를 이루는 〈세경본풀이〉에는 그녀와 주변인물들과의 다양한 관계양상이 부각된다. 〈세경본풀이〉의 핵심사건은 자청비를 중심으로 문도령과 정수남과의 관계 속에서 각각 벌어지고 있다. 문도령과의 관계는 서사전반을 지탱하는 중추적 사건으로서 〈세경본풀이〉는 '자청비의 문도령에 대한 사랑 이루기'라 할 수 있

이념보다는 감성을,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삶을 우선시하는 서술자 시각은 질박한 인간적 체취를 강하게 풍겨주는 평민적 삶의 건강한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봉양의 절대성과 함께 자식들에 대한 보살핌도 간과할 수 없는 바리데기의 내적 갈등이 동해안본에는 부각되는 것이다. 동해안본의 특징적 양상들은 강진옥(2004) 참조.

16) "우리가 이 애기 낳젠 ᄒᆞ난/ ᄌᆞ자지고 공이 들어시매/ 일홈이랑 ᄌᆞ청비로 ᄒᆞ기가/ 어떵ᄒᆞ우꽈?", 이달춘구연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39면.

다.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에는 항용 이런저런 장애와 갈등이 부각되게 마련인데, 정수남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소통이 단절되는 동안 부각되는 존재이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관계양상은 동문수학하는 벗에서부터 연인, 부부로 발전해가는 양태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결연과 이별이 반복 재현되어 서사의 깊이가 구체화되고 자청비의 적극성이 부각된다. 첫 만남의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 물을 핑계로 접근해오는 문도령에게 버들잎을 띄워주는 것은 이들의 인연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상생관계에 있는 물과 버들잎은 연인으로 발전하고 부부로서 세경신에 나란히 좌정하게 되는 그들의 관계양상을 예시하는 것이다. 만남과 이별, 죽음과 재생을 기본축으로 하는 그들의 인연은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청비의 노력의 결과 이어질 수 있었다. 만남과 이별의 교체는 서천여행과 소생의례의 수행을 통해 자청비의 신성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두 남성인물의 존재전환도 가능할 수 있었다.

문도령과 자청비는 두 번의 단절상태를 맞이한다. 첫 번째는 문도령이 결혼 통보를 받고 귀가한 이후로서, 자청비와 잠시 인연을 맺고 떠난 문도령은 소식조차 보내지 않아 그녀를 애태운다. 자청비는 집안에 머무는 동안 남종의 게으름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정수남과의 관계가 시작된다.[17]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는 '나무하기'라는 지시로 시작되지만, 정수남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상황이 심각해진다. 정수남은 문도령과의 관계를 통해 여성으로 성숙된 자청비를 주목하게 되고,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의 거짓말은 처음 자신에 대한 변명이었지만, 문도령을 끌어들인 후 달라지는 자청비의 태도를 보자 잠재된 욕망을 충족

17) 이 대목은 자청비가 집안에 머무는 동안 일상적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남종을 독려하여 새로운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포착된다. 문도령과의 성관계를 통해 그녀의 존재태에 변화가 생겨났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청비의 농경신적인 면모와 사랑, 성, 결혼 등의 신화소와의 관련성이 보다 세심하게 읽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자극된 그의 성적 열망이 집요해지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자청비의 대응도 다급해져 죽음이 초래된 것이다. 상전과 하인이라는 관계구도가 속임수와 수모라는 형태로 역전되면서 완력에 의한 성적 침탈이 일어났고, 정수남의 살해는 그 저항의 결과였다. 그런데 정수남의 죽음은 부모의 분노를 야기하여 그녀는 서천행을 통해 정수남의 소생을 시도하게 된다. 정수남과의 관계맺기는 자청비에게 입문의례의 직접적 동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정수남과의 관계는 그가 소생한 후 자청비가 부모의 집에서 쫓겨남에 따라 오랫동안 단절된다.

두 번째 단절은 문도령의 소생 이후인데, 그는 저승에서의 신혼생활에 빠져 돌아올 기한을 어겼으며, 급히 오면서도 말을 거꾸로 타는 등의 행위로 자청비의 오해를 사게 된다. 그로 인해 옥황상제로부터 곡종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온 자청비는 정수남을 만나게 되는데 이후 그들의 관계도 새롭게 전개된다. 자청비는 정수남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기 위해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풍요를, 홀대하는 자에게는 불모를 제공함으로써 농경신과 인간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세 인물의 관계양상은 각기 다른 대상을 욕망하는 삼각관계 구도를 갖는다. 문도령에 대한 욕망이 자청비의 위기를 야기한 것이라면, 정수남은 자청비에 대한 욕망으로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이들 두 남성은 외형상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자청비와 일정한 성적 관련성을 갖는 존재들이며, 죽음을 당한 후에 소생을 경험하는 과정에서도 자청비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서사의 부분으로 각기 존재하던 문도령과 정수남은 자청비를 매개로 농경신의 체계 속에 편입되면서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고, 각 인물의 개별적 속성은 그들이 관장하는 직능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그들이 점했던 공간적·사회적 위상은 신격적 위계와도 일치되는데, 천상적 존재였던 문도령, 지상의 상층 자청비, 그녀의 하인 정수남

은 각각 상·중·하라는 세경신의 위상과 유비되고 있다. 천상과 지상, 서천을 넘나들던 자청비의 탈공간성이 서사구조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인간세계를 중심에 두고 세계를 질서화하는 무속신화의 세계인식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3. 여성인물의 존재태와 직능의 상관성

3.1.경계존재로서의 여성인물

〈바리공주〉의 경우, 그 존재태의 특징적 국면은 '경계성'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바리공주의 경계존재적 국면은 그녀가 속해있던 공간의 성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녀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구출· 양육되면서 인간세계와는 단절된 공간에서 성장한다. 그녀의 성장공간은 인간사회 너머 탈인간계라는 점에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동안 바리공주는 그 존재가 부모에게조차 잊혀져 있었다는 점에서 생자와 사자 사이에 놓인 경계적 존재였던 셈이다.[18] 이 같은 바리공주의 경계적 위상을 사회적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사건은 바로 남장하고 떠났던 구약여행일 것이다. 남장은 생물학적 여성이 사회적 남성으로 활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여성/남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저승세계로의 여행은 산 자로서 죽은 자의 세계에 머물러야 한다는, 대립적 요소가 공존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녀는 남복을 입고 오

18) 그 결과 그녀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당연시되었던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간의 고정성을 떠나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의 비범성은 천문지리를 통달했다는 서술로 대변되는데 이는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학문수학의 기회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바리데기는 15년만의 모녀상봉시에 온몸에 털이 있는 짐승같은 모습(김복순구연본)으로 서술되기도 하는데, 이는 인간문화적으로 사회화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성장공간이 함축하는 다양한 의미망들은 그녀가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들이다.

구대왕의 아들로 위장하지만 그것은 구약노정에서 만난 초자연적 존재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여성임이 드러남에 따라 다수의 아들출산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결국, 남장의 구약노정은 바리공주의 경계존재적 면모를 중층적으로 부각하는 것이면서, 신성의 발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부과된 과제들이 완수됨에 따라 상호대립적 요소들이 통합되면서 바리공주의 신성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은 출산사건일 것인데, 이는 부모의 거부를 통해 확인되었을 사회적 거부 및 그로 인한 자기부정까지 야기했을 바리공주의 여성성이 한껏 드러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성이야말로 그녀에게 내재한 신성의 결정적 증표였던 것이다.[19]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존재태는 순차적으로 '소녀-(남복)-부인-(남복)-세경신'으로 나타나는데, 단계별 존재전환은 남복이라는 경계적 양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남복상태의 그녀는 여성으로 존재할 때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정체성을 은폐하고 당면한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적극 구사하는 위계사적 면모가 부각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생명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여성적 양태와는 일정한 거리를 보여준다 하겠다.

첫 번째 남복착용은 문도령을 만난 후 그를 따라 글공부 갈 때 행해졌는데,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으로 행세하면서 수년간을 남자아이들과 동문수학 한다. 그 동안 그녀의 성정체성은 줄곧 의심받았으나 '오줌 멀리누기'를 비롯한 몇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후 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지와 지혜가 동원되었고 그녀의 현실대응력도 확장· 심화되면서 다양한 능

19) 김헌선,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종교와 문화』 10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4.)는 '저승에서 생명의 창조를 경험하고 생명의 비밀을 터득한 사실'을 바리공주가 신격으로 좌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력을 지닌 청년으로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남복착용은 정수남과 문도령을 되살리기 위한 서천여행을 위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자청비의 영역확장과 심화의 경험이 특히 부각되는 전자의 사례일 것이다. 우선 서천꽃밭에 접근하는 방법이 문제였는데, 다양한 지략 -아이들이 가진 부엉새를 붓과 교환하고 활을 꺾아 명궁으로 위장하며, 말의 혀를 묶은 뒤 말의 반응을 매개로 이야기를 꾸며 대단한 집안의 자제인양 행세하였고, 정수남의 영혼을 불러내 부엉새를 잡은 뒤 활로 잡은 것처럼 위장했으며, 황새곤간의 사위로 뽑히자 과거시험을 핑계로 동침을 피하고, 꽃구경을 빙자하여 꽃밭에 가서 몰래 꽃 따기-을 구사하여 환생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문제상황과 대면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존재론적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수남은 시련의 동기이자 능력발현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자청비가 신격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며, 문도령의 소생의례는 반복을 통해 신성능력이 내면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변의 남자들은 자청비에게 시련을 제공하는 존재이자 신성존재로의 성장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남복상태의 서천여행은 자청비가 경계존재에서부터 다차원적 신성으로의 전환을 지향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남복착용은 생물학적 여성이 사회적 남성으로 역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같은 존재태는 생리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이 고정된 사회에서는 불완정성을 의미하지만, 신화적 관점에서는 대극성의 합일이라는 통합상징으로 파악되기도 한다.[20] 그러나 문도령과 황새곤간 딸의 결합을 통해 애초의 불완정성을 극복하려한 결말부분과 연관시켜 볼 때, 〈세경본풀이〉에서의 남복은 임시적이며 방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되풀이되는 이계여행과 소생의

20) 이수자는 자청비의 남장과 함께 문도령의 여장을 모두 남녀양성의 내재적인 성 결합상태, 즉 양성구유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주적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수자,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고대학회편,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236-237.

례, 혼인이란 결말을 통해 완전한 통합체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승사람으로서 서천의 꽃을 얻는다는 사실도 대립적 자질의 공존으로 볼 수 있는데, 산 자이면서 죽은 자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되풀이되는 자청비의 서천행은 대립적 자질의 구유와 그 자재로운 구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내재한 신성성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3.2. 인물의 성격과 직능의 상관성

앞 절에서, 두 여성인물의 행적에는 남장과 이계여행이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으며, 그것을 통해 확인된 그들의 경계존재적 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복을 통해 생리적 성과 사회적 성역할간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바리공주의 경우, 구약노정을 위하여 남복을 하고 국왕의 아들로 행세하나 여성적 정체성이 밝혀짐에 따라 다수의 아들출산이란 과제까지 수행한 이후 약을 구하여 부모소생이라는 과제를 완수한다. 이에 반해, 자청비는 동문수학 기간동안 남동생 행세를 하면서 남복상태로 지내며, 두 차례의 이계여행에서도 남성으로 행동하지만 자청비는 여러 차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정체성 위장에 성공함으로써 과제를 완수한다.

둘째, 이계여행과 경계적 양태이다. 산 자로서 죽음의 세계에 머문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된 현상을 동시에 갖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양가성은 신성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인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같은 존재방식을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계여행의 동기는 다소 다르지만, 죽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우선, 자청비의 경우 정수남의 죽음이 계기가 된다. 부모와 주변 모두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살해자가 됨으로써 모두가 접

촉을 꺼리는 타부(taboo) 존재로 전환된다.[21] 이같은 현상은 살해현장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에게 말을 건넸던 삼백관과의 관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초채 놓고 이채 노아 알엣녘 ᄆᆞ을을 들어사고 보니, 삼벡관(三百官)이 마조 앚안 바독 장귀 뒤염더라. 삼벡관이 말을 ᄒᆞ뒈 "절로 가는 저 비바리 ᄇᆞ름알(風下)로 지나가라. 부정(不淨) 서정이 만만허여지다." 조청비가 ᄆᆞᆯ 알레레 ᄂᆞ려 말을 ᄒᆞ뒈 "백관님아 이게 무슨 말입네까? 처녀가 지나가는데 어찌 조롱을 ᄒᆞ옵네까?" 삼벡관이 말을 ᄒᆞ뒈 "날로 나 줴(罪)는 모른다터니, 이 년아, 저 년아, 너 ᄆᆞᆯ 무제미 압(前)을 보라. 무지럭총각놈이 웬귀(左耳)로 ᄂᆞ단귀(右耳)레 멩게낭 살 ᄒᆞᆫ 대를 찔러놓고 유월(流血)이 낭조(狼藉)한 무지럭총각이 산 중 모르르냐?" "과연 날로 나 줴(罪)를 아옵네다."(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344면)

삼백관은 자청비를 뒤따르는 정수남의 원귀를 알려주면서 그녀가 부정한 존재로 전환되었음을 일깨워준다. 진성기본에서는 이들에 의해 해원의 방편이 제공되어 해원의례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22] 그녀의 부정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부모는 종을 죽인 딸을 혐오하고

21)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종엽 옮김, 『토템과 타부』, 문예마당, 1995, 52. 타부에 대한 내용은 본서 〈2장 타부와 양가감정〉 대목 참조.

22) 조청빈 ᄆᆞ을 탕 오는디, 중산촌에 ᄂᆞ려오고 본직, 백발노인 노장이 삼신선이 나완 앚안 바둑장귈 두엄구나. 조청비가 오라가난, 백발노인 삼신선이 "어떠난 느 우으로 놀낭내가 남시니?" "저 이 탄 오는 ᄆᆞᆯ발에 순작이 잽혀 죽으난 놀낭내가 남쑤다." "이년 저년 괫씸ᄒᆞᆫ 년, 느 탕 오는 ᄆᆞᆯ총지에 엄부럭 총각놈이 양 귀로 피 벌정케 나멍 돌란 오람따." 이젠 조청비 ᄆᆞᆯ머리 알로 풋딱 ᄂᆞ려서멍 "아이구! 살려줍서. 제가 ᄃᆞ랑 간 ᄉᆞ완이 행실리 불량ᄒᆞ연 죽여두언 오는 질이우다." "는 오ᄂᆞᆯ날 ᄉᆞ오시가 건당ᄒᆞ민 그이 귀신앞이 소고전맹 되느니다." 조청빈 "살려줍서. 살려줍서" 양 손을 모두치완 빌어가난 삼신선이 ᄒᆞ는 말이 "그영 말앙 가당 봐라, 가당 보민 산ᄆᆞᆯ ᄂᆞ리는 디가 신디 그 ᄆᆞᆯ은 삼통이 싰느니라, 짝통엣ᄆᆞᆯ에 하욕ᄒᆞ고 상통엣ᄆᆞᆯ엔 메를 치여 놓왕 북두칠성 대성군에 축ᄉᆞ를 드리곡 옥출경 삼실독을 익어라 그 귀신 털어진다." 오단 보단 아닐커라 ᄆᆞᆯ이 시여, 짝통에 모욕ᄒᆞ고 중통에 ᄒᆞ욕ᄒᆞ고 상통엣 ᄆᆞᆯ을 떠단 쏠을 싯고 메를 치연 북두칠성 대성군에 축ᄉᆞ를 드리고 옥출경을 삼실독 익으난 그 귀신 털어지여.(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90-291)

핍박하여 서천행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후, 문도령과의 만남 좌절이나 청태산할망에게 쫓겨나고 중이 되기까지 일련의 상황들은 타부로서의 존재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살이를 거쳐 며느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문도령의 죽음과 소생의례, 전란 평정, 문도령과 황새곤간 딸과의 혼인완성 등을 모두 해결한 결과 그녀의 절대신성은 확립되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경우는 쾌유가능성이 없는 부모의 중환이 이계여행의 동기가 되었다. 부모를 소생시킬 수 있는 약을 구하는 일이 그녀의 과제이다. 그런데 바리공주의 구약노정은 출생대목과 긴밀한 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신이한 태몽 등을 통해 아들일 것이라 믿어졌다가 딸로 밝혀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바리공주는 삶과 죽음의 경계공간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서울본의 경우, 기아를 명령하는 왕에게 자식없는 신하에게 수양딸로라도 주자는 중전의 간청은 국법에 없다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된다. 바리공주를 끝내 물에 띄워 보내게 하는 왕의 태도는 정황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바리공주를 가족/인간세계로부터 한사코 떼어내려는 국왕의 완강한 태도에서 우리는 타부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 마치 그녀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고 집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분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아의 결과, 바리공주는 인간세상과 단절된 채로 15년을 보낸다. 바리공주의 성장공간이 갖는 경계적 양태는 타부로서의 바리공주의 존재태와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다.[23] 모두에게 잊혀져 있던 바리데기의 존재는 중병 든 부모에게 약이 필요해지자 환기되어 그녀는 인간세계로 귀환하게 된다. 인간세계와 단절된 15년의 세월은 죽음의 상태와 방불하며, 따라서 돌아온 바리공주는 죽음의 세계로부터 되살아온 존재와 동일시될 수 있다.

---

23) 지그문트 프로이트, 앞의 책, 52면. "타부라는 표현은 신성한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에 언제나 공통적인 특징, 즉 그것과 접촉하기를 꺼린다는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같은 성장공간과 함께, 남복개착과 이계여행에 이르는 동안 그녀의 존재태와 관련된 표지들은 아들/딸, 존재/비존재, 여자/남자, 삶/죽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요소들을 동시에 지녔던 바리공주는 신성/부정을 구유한 경계존재로서의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청비의 발랄한 생명력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욕망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모색과 전략을 구사하며, 그것에 대립되는 갈등상황들과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끝내 극복하고 만다. 그녀의 행위들은 제약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생명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에의 긍정은 누구에게나 기대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여 얻은 아이이며 특별한 관심 속에 양육되었다는 사실이나 누구에게나 주목될 만큼 총명하고 비범한 자질을 지닌 점을 비롯하여, 자청비의 인물형상에서 드러나는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기욕망에 대한 긍정에서 비롯되는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이해된다. 그 결과 그녀는 서천과 천상을 넘나들며 죽음으로부터 삶을 되살리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현하였고 불모를 야기하는 제약적 여건들을 극복하고 불굴의 생명력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같은 성격들은 농경적 원리와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청비의 인물형상은 농경을 관장하는 세경으로서의 그의 직능과 긴밀하게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리공주의 인물형상에서 부각되는 특징적 양상은 자기욕망에의 억압 및 힘 있는 존재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이다. 인물의 수동성은 제약적 상황을 설정하는 장치로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 제약이기도 하지만 존재론적 제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리데기의 출생과 기아는, 사회적 차원에서 남존여비· 남아선호 등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유교적 효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적 배경 안에서의 제약적 현실과 의미지향을 읽어낼 수 있다. 반면, 존재론적 차원에서 볼 때 이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피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유한성에의 자각, 그 존재론적 제약에 대한 인식내용을 바리공주라는 인물을 통해 재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 인간존재 일반에게 그러한 대상인 것처럼, 개인도 극복할 수 없는 억압적인 관습과 규범들에 불가항력적으로 순응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양가적 감정은 죽음과 관련된 현상들을 대하는 문화적 방식에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 민속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는 수많은 금기들이 존재한다. 이야기판에서 들을 수 있는 상문살에 관한 담론들은 죽음에 대한 경계적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24] 생자들의 이같은 양가감정은 죽음이 갖는 양가적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버려지는 바리데기의 존재태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범상치 않은 태몽으로 인해 더욱 간절했던 아들출생에의 기대는 출생과 함께 극도의 혐오로 치환되고, 기아와 함께 초자연 존재의 양육을 받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공간에 처한 바리공주의 중층적 경계표지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 갖는 양가감정을 연상시킨다. 나아가, 성장공간의 경계적 속성은 바리공주와 죽음과의 친화성을 암시하고, 그러한 세계로부터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하고도 준비된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바리공주의 존재가 부친의 죽음을 앞둔 중병에 의해 환기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환되는 현상에 대한 이유처럼 보인다.

바리공주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인 '받아들임'은 소명받은 자의 헌신성을 연상시킨다. 인간세상으로부터 거부된 그녀는 출생, 기아, 양

24) 양주 백석면 오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판(2003. 2. 5)에서 상문살과 관련한 담론이 매우 진지한 분위기에서 행해졌다. 특히 김을순할머니는 그것에 관해 해박한 지식과 굳건한 믿음을 보유하고 있는 화자였는데, 문상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상문살을 해소하는 비방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했고 아울러 상문살을 방비하는 비방 제작법과 비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육, 구약노정에 이르는 동안 초자연적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바리공주의 양육자인 이들은 그녀에게 인간적 한계를 넘는 드높은 가치에의 지향으로 인도한 존재들이다. 그녀의 무기는 '참고 견딤'이다. 그것에 바탕하여 끝없는 자기부정을 통한 상징적 죽음을 감수함으로써 삶의 신비를 체현한 존재가 된다. 바리공주의 행적은 '기아(죽음)/구출·양육(죽음의극복), 득병(죽음)/서천행-약-소생의례(죽음의극복)'처럼 자타의 구별 없는 '죽음/삶'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면서 집단적인 위기를 극복하여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결국, 바리공주의 성격과 행적에 나타난 특징들은 죽음에 대한 관념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바리공주의 행적 속에 담긴 중층적 경계표지들은 타부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집단적 격리상태를 지속시키는 요소들이다.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바리공주에 대한 집단적 양가감정은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죽음의 상태로 던져졌던 바리공주는 자발적으로 죽음의 세계로 진입하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여 존재전환을 이루었다. 그녀가 되살린 부모는 생명체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바리공주는 이러한 공업을 성취한 결과 망자를 인도하여 극락으로 천도하는 신격에 좌정할 수 있었다.

신화와 제의는 신성현시의 경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한다.[25]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 〈바리공주〉 신화에서 구현된 바리공주의 신성한 행위는 그것의 연행맥락인 지노귀굿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으면서 의미화 되고 있는가? 지노귀굿은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해 행해지는 의례이다. 제의를 통해 영혼이 정화된 망자는 그를 인도해줄 바리공주신을 따라 저승으로 가서 극락왕생한다고 믿어진다. 망자는 그같

25) 멜시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역, 형설출판사, 1979.

은 천도의 과정을 거쳐 조상신의 반열에 오르고 신격으로 좌정하게 된다.[26] 조상신이 된 그는 후손을 통해 기억되는 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 것이다. 바리공주의 경계존재적 국면이 왕의 중병 및 왕국의 불모와 연결되는 것이나[27] 바리공주의 부모가 그녀의 아들들을 그토록 환영하는 이유도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조상신관념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농경신으로서의 자청비와, 망자의 저승천도와 조상신으로의 전환을 돕는 바리공주의 인물형상과 존재태가 그 제의적 기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화적 인물의 성격이나 존재태는 해당신격의 제의적 기능과 일정한 상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격의 형상 자체에 신격의 직능적 특성이 함축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본다.

4. 무속신화의 생명인식과 농경적 원리

4.1. '죽음과 재생' 구조와 농경원리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에게 행위의 동인을 제공하는 존재는 두 명의 남성인물이다. 그들은 자청비로 인해 죽었다가 그녀에 의해 되살아나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죽음은 '살해당함'이란 공통성을 갖는다. 살해라는 특성

---

26) 김헌선(2004)은 바리공주신화를 서울지역 지노귀굿의 맥락과 긴밀하게 관련시키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7)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바리공주는 예상되는 왕국의 불모성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 왕국이 쇠퇴할 것이라는 관념의 소산-을 대속하려는 희생제물로서의 성격을 은연중 보여주기도 한다. 국왕(부부)의 중병은 혈통의 문제이자 왕국의 불모성을 구체화하는 사건이다. 국왕의 중병, 왕국의 불모는 동일한 의미망을 이루면서 집단민의 두려움을 야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속물로서의 새로운 희생제물이 요청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의 세계에 속해있는 바리공주가 다시금 희생양으로서 환기되는 것이다. 그녀는 부모를 위시한 집단민에 의해 불려나온 존재이다. 그것은 그녀자신이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상황 안에서 그녀의 소명이 되었다. 그들의 기대를 알기에 그녀는 국가의 대신이나 언니들까지 모두 거부하는 죽음의 세계로의 여행을 자청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상 외부로부터의 폭력은 당연히 전제되지만, 흥미롭게도 그들의 죽음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감정적 국면이다.

힘의 문제라면 말과 소 각 9마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정수남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일 것이다. 대식성은 정수남의 거인적 면모와 아울러 육체적 완력을 암시한다. 절등한 완력과 대조되는 신분적 열등성은 상전에 대한 정수남의 욕망을 성적침탈시도로 드러나게 하고 그것은 좌절로 귀결된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자청비는 이를 잡아주겠다고 유인하여 그를 무릎 위에서 잠들게 한 뒤 나뭇가지로 양쪽 귀를 찔러 죽게 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미모와 지적 능력을 갖춘 문도령은 하늘옥황 문곡성 문선왕의 아들이라는 출자로 인해 그 위계적 우월성이 부각된다. 자청비의 연모대상인 그의 존재는 자청비의 동기를 자극하여 서사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수남의 죽음이 자청비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에 비해, 문도령의 죽음은 자청비를 욕심내는 주변남성들에 의한 것이다. 그는 사태를 파악한 자청비가 두터운 솜옷을 마련하고 방비할 계책을 일러주었던 터라 일차 위험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길거리에서 매달리며 권하는 외눈할망의 술잔은 거절 못해 독살되었다.

두 남성인물의 죽음에는 감정적 국면과 함께 '여성인물에 대한 성적욕망'이라는 현상이 중요 요인으로 개입되고 있다. 여성인물은 금제된 욕망을 추구하려는 상대를 직접 살해하거나, 자신을 욕심내는 주변사람들에 의한 남편의 죽음을 초래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인물은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려내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그 신성성을 입증하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이처럼 남녀간의 애정을 중심사건으로 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겪어낸 남녀인물들이 세경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농경의 기원에 관한 신화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인물은 지상과 천상, 서천이라는 이질적인 세계공간을 왕래하면서 욕망과 제약적 현실사이의 갈등 및 그 극복의 양상을 죽음과 소생의 의례를 통해 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에서 구현되는 생명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녀관계와 공간이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경본풀이〉의 남녀관계는 문도령과 자청비를 중심에 놓고 각기 다음과 같은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①지상: 문도령 +자청비 =〉 수학, 결연과 이별 -〉정수남과의 관계
②지상: (문도령)+자청비-정수남 =〉정수남 살해 -〉서천행
③서천: 남복의 자청비 +황새곤간 셋째딸 =〉 (의사)결혼, 환생꽃 -〉정수남 소생
④천상: 자청비 +문도령-서수왕딸 =〉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혼
⑤지상: 주변남자들-자청비+문도령 =〉 문도령 살해 -〉서천행, 소생
⑥서천: (자청비)+문도령 +황새곤간 셋째딸 =〉 자청비의 지상행 -〉 정수남 만남
⑦지상: 문도령-자청비-정수남 =〉 상·중·하 세경으로 좌정

각 공간에는 서사의 중심인물인 남성과 여성인물을 중심에 둔 다양한 남녀관계가 펼쳐지는데,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배경과 인물들의 관계양상에는 일정한 상관성이 발견된다. 지상공간에서는 만남과 이별, 욕망과 갈등, 죽음과 소생 등이 천상존재 문도령과 지상존재 정수남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천세계의 매개를 필요로 하는데, 생명을 되살리는 꽃밭이 서천에 있기 때문이다. 지상존재인 자청비는 결혼을 통해 서천꽃밭에 접근한다. 여기서 생명소생의 능력획득과 결혼의 관계성이 암시되고 있다. 남녀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경본풀이〉의 지상과 서천은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세계이다. 지상에서의 남녀관계가 죽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비해, (남복의 불완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천에서의 결혼은 생명소생이라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 이는

결혼이라는 신화소가 대극적인 것의 합일을 상징하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남녀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 욕망, 갈등, 합일, 죽음, 재생 등의 요소가 〈세경본풀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모티프들이 곡물의 발아와 성장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에 이르는 과정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남녀인물들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죽음과 재생의 구조는 농경적 원리에 기반한 생명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청비와 황새곤간 딸과의 혼인관계는 남성들의 소생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것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결혼을 거쳐 살해되었던 문도령이 소생한 연후에야 비로소 완전해진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서천으로 파송하여 미완의 혼인을 완전한 것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오곡의 획득과 세경으로의 좌정도 서천혼인이 완정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혼인의 대극성 통합을 재확인시켜준다. 결국 천상세계는 대극적인 지상적 존재와 천상적 존재를 결합하게 하는 공간이고, 穀種의 기원이 마련되는 근원적 세계이다. 서천행을 거쳐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지상과 서천, 천상을 넘나들며 문제해결을 완수한 자청비는 하늘옥황으로부터 열두시만국과 오곡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지상에 농경문화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결혼 내지 그 유사한 관계양상은 새로운 상태로의 전환을 초래하는 매개역할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남녀인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랑을 이루기 위한 자청비의 고난과 그 극복과정 ⇔ 이승과 저승, 천상을 넘나들면서 인연을 이루고, 서천의 꽃으로 두 남성인물을 소생시켜 농경신에 좌정하게 한다.

②욕망을 이루기 위한 정수남의 술책과 좌절 ⇔ 자청비에 의해 죽음과 소생을 경험하고, 후일 목축을 관장하는 하세경으로 좌정한다.

③문도령의 애정과 성취 ⇔ 자청비와 결혼한 후 그녀를 탐내는 사람들에게 살해되나 자청비에 의해 소생을 경험했으며, 저승인연까지 이룬 후 자청비와 함께 세경이 된다.

자청비는 두 남성인물의 재생의례를 주재한 존재이고, 남성인물들은 죽음과 재생을 통해 신성을 획득하고 신격에 좌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살해를 주관하는 존재이자 그 소생을 관장하는 존재이기도 한데, 죽은 남자들을 되살리고 신성존재로 전환케하는 자청비의 행적에는 대모신적 면모가 농후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상호 긴밀한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수남은 그녀의 신성발현의 계기를 마련했고 문도령은 자기실현을 향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준 존재이다. 문도령과의 결혼 및 서천혼인의 완정으로 남/녀, 이승/저승, 삶/죽음 등의 대극성 통합이 완성됨으로써 그녀는 농경적 생명원리를 지상에 구현한 생명현상의 주관자로서의 위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세경본풀이〉는 다양한 세계에 속한 인물들의 긴밀한 관계양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문도령에 대한 자청비의 헌신적인 사랑은 지상적 존재가 천상적 존재를 갈망하는 관계구도로서 천상적 가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자청비에 의한 소생의례 주관이나 전란 평정, 곡물을 지상에 가져온 이후의 결말부분 등은 지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인식을 정립해갔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도령은 지상으로 내려간 자청비를 쫓아가고, 자청비는 지상에서 정수남을 만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며, 굶주리던 정수남은 자청비를 수행하면서 농경적 질서 아래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각각 존재하던 자청비와 문도령, 자청비와 정수남의 관계는 지상적 공간에서 농경이라는 문화적 질서를 담당하는 신격체계에 통합되면서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세경본풀이〉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출산 화소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자청비가 되풀이 수행하는, 살해된 남성인물의 소생의례는 그 대안적 관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생의례를 위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자청비와 그녀를 통해 되살아난 남성인물들의 관계양상은 바리공주로 하여금 생명수와 꽃을 획득하게 해

준 아들들과의 그것에 대응될 만하지 않을까? 생명을 불어넣고 되살림을 관장하는 존재로서 자청비에게 내재된 대모신적 면모는 농경원리의 발현이라는 직능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 반복되는 남성인물들의 살해와 소생의 구조는 농경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녀의 공간이동은 농사지을 수 있는 계절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의 계절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곡물의 죽음을 통한 풍요로운 결실을 현재화하는 것이다. 풍요와 다산을 촉구하는 그같은 원리는 농경뿐만 아니라 그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목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정수남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은 수렵에서 농경으로 이행하는 존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28] 특히 정수남의 형상에서 부각되는 대식성을 위시하여 강한 힘, 성욕, 게으름 등의 동물적 속성들은 다산이나 번성과 관련되는 상징들로서 마불림제를 관장하는 목축신이라는 정수남의 직능과도 일정하게 상응하고 있다.[29]

---

28) 자청비에 의한 정수남의 살해는 수렵적 속성의 죽음과 농경적 속성의 재생으로도 볼 수 있다.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부여한 과제는 나무를 해오라는 것인데, 이를 농경과 관련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로서 羌族을 비롯한 중국 소수민족의 농경기원신화를 들 수 있다.(최원오, 「한국설화와 중국 소수민족 설화의 비교연구-문화기원설화를 중심으로」, 김태곤외,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1997.) 지상에서 아내를 찾아 천상으로 올라간 남성인물에게 천상의 장인이 부과하는 과제로서 화전 일구기에서부터 씨 뿌리고 거두는 농경의 제반과정을 실천하게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나무를 베는 일은 그러한 작업과도 일정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구나, 마소를 일시에 먹어버리고 도끼마저 잃어버리는 정수남의 행위는 마소를 조력자로서 중시하는 농경문화적 성격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수렵민적 성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굶주리며 방황하던 정수남이 자청비를 따라 씨 고르는 일을 돕는다는 결말부분은 수렵민적 방식의 해체와 농경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29) 그는 나무해 오라고 자청비가 독려하자 마소를 각각 9마리씩 요구하며, 그것들을 묶어놓고 자다가 목이 말라 죽자 모두 구워먹고 껍질만 가지고 온다. 자청비의 질책을 모면하려고 오리를 잡으려다 도끼를 그는 물에 빠뜨린 후 끝내 옷마저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채 돌아오는데, 이같은 대목들은 정수남의 수렵민적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또한 그는 자청비를 한라산정으로 유인해가는 동안에도 (말과 마부역할 및 馬祭 등과 관련된 서술들)을 통해 말과의 친연성을 보여주며, 후일 자청비와 함께 씨를 고르기도 하지만 마불림제에서 제향되는 목축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4.2. 생명재현의 근원, 저승

〈세경본풀이〉에는 삶, 죽음의 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경신으로 좌정하는 이들의 행적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뜻하는 농경의 원리가 재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농경신화들에는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된다.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현상을 문제 삼으면서 삶과 죽음의 연관성, 즉 그 상호 모순적인 현상이 어떻게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30) 죽음을 앞에 놓고 삶에 대해 말하는 이러한 양태는 〈바리공주〉에도 나타나고 있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역할을 하는 바리공주의 행적을 대표하는 일도 서천꽃밭에서 약과 꽃을 구해 아버지를 소생시켰던 데에 있다는 사실은 생명소생의 근본 원리가 생산성 발현이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죽음과 재생을 통해 삶의 논리를 구체화하는 이같은 사고구조는 농경적 원리에 근접하는 관념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 무속신화의 생명원리가 농경적 원리에 기반한 관념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왜 생명의 영약은 죽음의 세계로 관념되는 서천서역국에 있는가? 우리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저승은 죽음의 세계이자 또다른 삶이 준비되는 세계로서, 존재의 근원성을 배태한 공간이다. 이승에서의 죽음, 불모, 쇠퇴 등이 삶, 풍요, 번성 등 생명원리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 생명원리의 구현인 죽음으로부터 삶으로의 교체 현상이 신화적 서사에서는 공간이동으로 설명

30) 이집트신화에서 이시스와 오시리스는 풍요의 상징이었다. 살해된 후 시신이 해체된 오시리스는 이시스에 의해 시신이 수합, 재생되었으나 저승세계의 지배자가 된다. 적도부근의 곡물기원신화로서 시체화생형인 하이누벨레는 살해된 후 시신이 분리되어 묻힌 곳마다 집단의 주식이 되는 구근식물이 자라났다. 페르세포네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세계이동을 반복하는데, 그녀의 죽음과 재생은 농경이 가능한 계절과 그렇지 못한 계절의 교체로 나타난다.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까치, 1999.에는 농경신화가 갖는 이러한 죽음과 재생이라는 보편적 양상에 대해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되는 것이다. 저승세계에 대한 이같은 관념내용은 무속에서 사령제를 통해 망자를 저승으로 천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례적 의의를 갖는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청비의 경우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의례는 반드시 공간이동을 전제로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생꽃은 서천꽃밭에 있기 때문이다. 바리공주도 부친(부모)의 약을 구하러 서천꽃밭에 갔고 그것에서 약물과 생명의 꽃들을 구해왔다. 그같은 관념형태의 기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 창세신화에서 발견되고 있다.31) 미륵과 석가의 치소차지 경쟁에는 잠자면서 무릎에서 꽃을 피운 자(미륵)는 내기에 져서 저승으로 가고 그 꽃을 훔쳐 내기에 이긴 자(석가)는 이승을 차지하여 다스리게 된다는 대목이 나온다. 미륵은 저승으로 가면서 이승세계의 유한성, 부정성 등을 예고한다. 창세신화의 이같은 세계인식은 생명의 근원성이 저승에 있다는 관념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에 대응되는 이승은 현상성, 즉 덧없고 무상하며 사라지고 마는 유한성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이공본풀이〉는 서천꽃밭을 상정하고 부모세대가 그 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의 소임을 맡아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들의 아들인 안락국은 수난받는 어머니의 참혹한 죽음을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꽃으로 소생시키고 장자의 가족들을 수레멸망악심꽃으로 제거한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서천으로 떠난다. 서천의 꽃밭에는 수많은 꽃들이 있고, 꽃들의 이름이 다양한 기능과 함께 제시되는데, 생과 사를 비롯하여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중요 현상들이 꽃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관념을 보여주고 있다.32)

---

31) 손진태,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1-15면.

32) 제주도 무속신화인 〈삼승할망본풀이〉는 다소 다른 모양새를 보인다. 수많은 꽃을 피운 풍요의 존재가 생불할망이 되고 그는 이승에서 아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관장한다. 반대로 시들고 볼품없는 꽃을 피운 동해용왕따님아기는 패배하고, 저승에서 죽은 아이를 관장하는 구삼승이 된다. 이 경우,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 번창함이 번성하는 꽃으로 상징되는 것이므로 현세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풍요와 불모의 존재가 공존하고 있고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이승과 저승은 각각 삶과 죽음의 세계라는 이원적 공간으로 관념되지만, 양자는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죽음이 새로운 삶의 근거로 작동하는 원리는 달을 비롯한 천체나 자연물에서 유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3] 특히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농작물을 비롯한 다양한 식물의 생태와 관련된 농경적 원리는 생명현상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근거로 자리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경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생명 출현에의 기대가 뚜렷하게 존재하게 하는 문화이다. 농경을 통해 관찰된 생명현상에 대한 이해방식은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다. 〈세경본풀이〉에서 드러나는 자청비의 적극성은 그같은 농경원리의 주재자로서의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죽음과 소생을 반복하는 곡물령의 수동적 양태와는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저승은 죽음의 공간이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으로서, 생성을 준비하는 혼돈의 세계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바리공주〉조차 그러한 농경적 원리를 저승이라는 공간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리공주의 능력 획득은 여성성의 발현과 관련되지만, 그것은 '죽음에서부터 삶으로'의 구조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삶이 시작되는 것은 곧 저승이라는 공간이 죽음과 삶을 동시에 배태하는 혼돈의 공간임을 의미한다.[34] 자청비의 서천경험이나 환생꽃의 존재도 이같은 관념을 잘 보여주는 대상들이다.[35]

---

33) 멜시아 엘리아데, 앞의 책, 172-237면.

34) 저승에 대한 관념내용에는 '코스모스'와 '카오스'를 기본 개념으로 세워 무속의 원형적 사고체계의 이론화를 시도한 김태곤, 『한국무속연구』(집문당, 1981)의 관점과 다소간 연결될 만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본다.

35) 세계의 농경관련 신화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 또는 다양한 이름들이 서로 연관되면서 공존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오랜 전승의 역사와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리이스 신화의 경우, 농경과 관련된 신들- 데메테르, 페르세포네, 디오뉘소스 등등 다양한 신들은 이름이 서로 연관되거나 착종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카를 케레니, 장영란 강훈 옮김, 『그리

서천꽃밭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과 기대가 가꾸어낸 신화적 공간으로서,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는 무속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덧없이 사라지는 현상세계의 허무함을 초극하고 싶은 기대가 피워낸, 생명으로 충만된 아름다운 꿈의 세계이다. 서천 꽃밭은 무속신화의 세계 곳곳에 존재하면서 쉬임없이 그 생명의 꽃들을 피워내고 있다. 그 꽃들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 무속의 생명인식을 잘 보여주는 '신명'은 이에 관해 시사하는 바 크다. 신명은 우리를 관념으로부터 해방하고 우리의 생명에너지가 우주적 생명기운과 하나 되는 전일적 생명체험을 경험하게 한다. 나와 너의 구별이 사라지고, 일체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한가운데에 오롯하게 존재하는 그 순간 -생의 충만을 누리는 우리 자신이 눈부신 꽃으로 피어나고, 세상은 바로 꽃밭이 아니겠는가.

5. 마무리

구비전승의 특성상 구비신화에는 적층성이 존재한다. 두 무속신화는 신화의 생성 및 전승과정에서의 역사성과 문화적 중층성을 반영하고 있다. 죽음과 삶, 농경원리 등은 근원적인 주제들로서 신화적 상징으로 구현된다. 그같은 신화적 관념을 풀어나가는 서사적 질서는 전승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한 소통성을 갖는다. 더구나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스 신화 I. 신들의 시대』, 궁리출판, 2002, 435-478.) 고대 전승들의 양상, 각 지역별로 숭배되는 신관념의 차이 등이 전승상의 혼란 내지는 다양한 현상들의 공존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신격에 대한 관념의 초기적 양상은 대체로 유사한 기능으로 관념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생존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원시문화 단계에서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적 노력의 산물이자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교섭을 통해 자연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던 종교적 상상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인간의 안녕과 풍요에 대한 무속적 갈망은 다양한 여성신격에 대한 관념을 낳았다.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풍요상징,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죽음과 재생의 반복을 통한 영속성의 관념 등을 낳았을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농경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연관되었을 것으로 본다.

주변화 되어갔던 무속의 사회적 위상을 고려하면 자기생존을 위한 이념적 가치의 수용과 확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바리공주〉를 비롯한 여성신화를 구성하고 있는 서사의 표층적 논리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등에 근거하는 것은 그같은 역사적 층위를 반영해주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경우, 효가 절대적 가치로 작용했던 조선시대의 윤리적 이념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자청비의 행동방식에서 남복착용도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역할이 고정되어 있던 조선시대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의 관습적 표현과도 상통하고 있다.

구비신화의 중층성이 전승당대의 이념이나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는 불가피한 현상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무속신화의 현재적 텍스트 그 자체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이다. 농경기원신화가 현재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 후대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농경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내용의 보편적 국면은 우리의 눈을 서사적 논리 너머 신화적 근원상징을 향해 열어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특정한 제의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격의 내력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제의적 기능과 관련된 특성을 내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이제 논의의 출발에 섰을 뿐이다. 무속신격의 형상방식, 존재태, 제의적 직능의 연관성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제의적 맥락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신화적 원리를 규명하려는 시도 또한 보다 섬세한 분석과 논리를 갖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할 때 의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비한 부분들은 후속작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진옥,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 1, 이화여대 여성신학연구소, 1995, 149-200면.

강진옥, 「서사무가 바리공주의 변이양상과 여성적 경험의 재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5-43면.

고은지, 「〈세경본풀이〉 여성인물의 형상화 방향과 내용 구성의 특질」,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1999, 54-76면.

김헌선, 「바리공주의 여성신화적 성격 연구」, 『종교와 문화』 10호,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4, 21-89면.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 8, 일지사, 1982, 56-78면.

서대석, 「바리공주연구」,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재수록, 199-253면.

서대석·박경신, 『서사무가 1』,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428면.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문화사, 1930, 1-215면.

이경엽, 『무가문학연구』, 박이정, 1998, 3-384면.

이경하, 「바리공주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특징에 관한 비교적 고찰」, 서울대대학원 논문, 1997, 1-121면.

이수자, 「농경기원신화 세경본풀이의 특징과 의의」, 동아시아고대학회편, 『동아시아 여성신화』, 집문당, 2003, 217-244면.

조현설, 「여신의 서사와 주체의 생산」,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학회, 2001, 219-241면.

좌혜경, 「ᄌᆞ청비, 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 여성상과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6, 한국무속학회, 2003, 155-182면.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51-865면.

천혜숙, 「신화로 본 여계신성의 양상과 변모」, 『비교민속학』17, 비교민속학회, 1999, 53-73면.

최원오, 「한국설화와 중국 소수민족 설화의 비교연구-문화기원설화를 중심으로」, 김태곤외, 『민속문학과 전통문화』, 도서출판 박이정, 1997, 343-376면.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969면.

홍태한외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4』, 민속원, 1997-2004, 7-609/7-581/7-389/7-544면.

조지프 캠벨,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이진구 옮김, 까치, 1999, 11-570면.

지그문트 프로이트, 『토템과 타부』, 김종엽 옮김, 문예마당, 1995, 5-327면.
한나 시걸, 『멜라니클라인 : 멜라니 클라인의 정신분석학』, 이재훈 옮김,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5-203면.
카를 케레니, 『그리스 신화 I. 신들의 시대』, 장영란· 강훈 옮김, 궁리출판, 2002, 5-497면.
마델레인 데이비스·데이빗 윌브릿지,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6-231면.
멜시아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형설출판사, 1979, 3-504면.

* 이 논문은 2월 28일에 투고되어 4월 27일에 심사 완료하고 5월 4일에 게재를 확정함.

<Abstract>

Shamanistic myths of goddess and principles of life in agricultural society: represented in the tales of "Princess Bari" and "Saigeongbonpul-ee"

Kang Jin-Ok(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delineat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view of the stories of "Princess Bari" and "Saigeongbonpul-ee", both of which depict activities of female characters more substantially than others. The story of "Princess Bari" is about a deity figure who leads the dead to the world of the dead and the story of "Saigeongbonpul-ee" is about a goddess who takes care of agricultural abundance. Both tales show commonality in that heroins in both tales with different roles, one involved in the living world, the other in the after life world, bring the dead to life by the flower attained during the trip to the "West Heaven". The commonality of the story structure is identified by the common narrative elements.

It was found out that the characters and ritual roles of the

deity figures are closely related and this is how the deification of female characters is achieved. Princess Bari, who was abandoned on birth and raised by a supernatural being isolated from the human world, represents both life and death. Her closeness to death connects her character to the role of leading the dead and settling them as ancestor gods. On the other hand, Jacheongbi who was raised full of parental love, have overcome obstacles with dynamic liveliness to become affluent and productive is well suited for the role of an agricultural god.

However, the marginal aspects of female characters become more apparent as they set out the journey to the 'west heaven' (life/death) in male clothing (male/female) for ailing parents and to revive the male characters. The conflicting aspects are integrated as the heroins earn the life-flower by solving problems they encounter. The female characters thus transforms into a divine being of multiple levels. The place that made this possible called 'flower bed of west heaven' is the world of death as well as an ultimate life creating place. This is well represented by Jacheongbi who travels the 'west heaven' and this world back and forth and bring lives back repeatedly. Moreover, it is found out that shamanistic perception of life that is, life is born from death, from the 'flower bed of the west heaven' created by shamanism-worshipers who dream of eternity is founded on the life principles of the agricultural society, i.e., fruit, death, and rebirth.

key word : Shamanistic myths of goddess, Principles of life in agricultural society, "Princess Bari", "Saigeongbonpul-ee", Life-flower, 'Fower bed of west heaven', Shamanistic perception of life